



1, 2 적멸보궁 천장 단청 3 적멸보궁 본당 내부

국 민 고 향	국 가 대 표
정 선	힐 링 도 시
입 니 다	

정선 정암사 '적멸보궁' 해체 복원 불사 회향법회 봉행 기존 주부재 유지·천장 단청 공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정암사는 적멸보궁 해체 복원 불사 회향법회를 지난 6월 18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에서 봉행했다.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하나로 갈래사라고도 한다. 신라의 대국통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자장율사가 말년에 수다사에 머물 때였다. 하루는 꿈에 스님이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보자"고 했다. 아침에 대송정에 가니 다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며 사라졌다. 자장율사는 태백산으로 들어가 찾다가 큰 구렁이가 뿌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갈반지임을 알아차렸다. 이곳에 석남원을 창건하니, 이 절이 정암사다.

2020년에는 정암사 수마노답이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다.

조선 영조 47년인 1771년 중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정암사 적멸보궁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다.

그러나 2019년 강원도의 전수조사 결과, 기둥 대부분이 충해를 입는 등 복원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전면 해체 복원하기로 하고, 2021년 4월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해체 과정에서 1771년 중수에 부합하는 간룡이라는 중국 창나라 연호가 적힌 상량문을 발견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적멸보궁 보전을 위해 첨단공법으로 기존 건축 주부재를 유지했고, 예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천장의 단청은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정암사는 적멸보궁 해체복원에 맞춰 불단 조성과 도량 정비도 했다.

정암사는 회향법회에 이어 복원 불사를 축하하는 전통 음악회도 개최했다. ▼



2



3

